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실사단의 방문을 기다리는 여수항에 질푸른 봄의 생명력이 가득하다.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이라는 엑스포 주제를 연상시키듯, 박람회장이 될 여수 신항과 오동도(사진 앞)의 모습이 한없이 아름답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2 세계엑스포는 여수로!

BIE실사단 오늘 여수 방문... 밤 8시 해양공원서 환영행사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후 보지 실사단은 1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첫 실사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실사단은 이어 11일 오후 박람회 후보지인 여수를 직접 방문, 여수 현지 실사를 이틀동안 벌이게 된다. (관련기사 3면) 까르맹 실뱅 단장 등 7명의 BIE 실사단은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여수 세계박람회의 명칭과 주제 ▲개최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은복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여수엑스포의 공식명칭은 '세계엑스포 여수 한국 2012(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단순 명칭은 '엑스포 2012 여수 한국(Expo2012 Yeosu Korea)'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 개최 기간은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라고 밝혔다. 개최 이유에 대해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은 "바다와 연안이 처한 위기는 시급하며 그 영향이 세계적으로 미칠 때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는 살아있는 바다와 숨 쉬는 연안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사단은 첫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임제정 국회의장을 면담했으며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초청 오찬에 참석했다. 실사단은 이날 오후 두 번째 프리

젠테이션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계획과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점검했다. 발표에 나선 윤종근 유치위 국제협력본부장은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개최는 당초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안정된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을 가진 국가로 엑스포를 차질없이 개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사단은 방한 3일째인 11일 하얏트호텔에서 관람객 수와 숙박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이날 오후 여수 현지를 방문해 개최 예정부지 및 준

■BIE실사단 오늘의 일정

▲11일 오전 9시 프리젠테이션(하얏트호텔) ▲11시 30분 해수부장관 초청 오찬(〃) ▲오후 2시45분 여수시민 환영행사(여수공항) ▲오후 3시 20분 전남지사·여수시장 면담(여수시청 상환실) ▲오후 3시 35분 시민대표 면담(여수시청 회의실) ▲오후 6시 20분 시민환영 리셉션(이순신합) ▲오후 7시 40분 거북선축제 참관(진남관 입구) ▲오후 7시 55분 여수시민 환영행사(해양공원)

비사함을 살피게 된다. 한편 실사단 방문을 앞둔 여수시에는 환영 플래카드 등 각종 홍보물이 내걸려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과 시민 등이 분야별로 최종 점검을 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박지경기자 unipark@

우규승씨 "설계 일부 변경" 문화전당 랜드마크 댐질식 보강 안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인 건축가 우규승씨가 전당 내 일부 건물의 지상화 등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광주시와 시의회 등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씨는 1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서 가진 문화전당 설계회에서 랜드마크 기능 강화를 위해 어린이지식 박물관을 지상으로 올림과 동시에 초대형 태양열집열관과 대형전광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광태 광주시장과 손재홍 문화수도특위 위원장 등 시의원들은 "우씨의 수정안은 국제적인 명물이 될 대형 지상 건축물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여망과 차이가 크다"며 랜드마크 기능 강화를 재차 요구했다. 특히 11일 오후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건담회에서는 랜드마크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씨가 이날 밝힌 랜드마크 보강책은 우선 전당 내 가장 큰 건물인 어린이 지식박물관의 지상화다. 이 건물(길이 165m)을 지상에서 12m 가량 올릴 경우, 그 규모가 서울 63빌딩을 능가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웅장하다는 것이다. 또 다목적전시공간인 멀티스페이스 상부에 폭 20m·길이 60m 규모의 태양열집열관을, 전남경철철 건물 앞의 문화광장에는 높이 25m·폭 72m의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씨는 그러나 최근 광주시와 문광부 사이에 거론됐던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지상설계) 신설 문제와 관련, 이날 수정 제시된 설계안만으로 도 랜드마크 기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박광태 시장은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걸출한 랜드마크가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희종기자 chae@

韓中 FTA 필요성 공감

盧대통령-원자바오 회담...BDA 조속해결 논의

한국과 중국은 10일 김포-상해 항공차오 공항간 정기 셔틀 항공편을 개설하고 양국 해·공군간 핫라인인 직통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김포-상해간 정기 셔틀 항공편을 개설하기로 하고, 양국 항공 당국간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그간 중국측은 우리측의 김포-상해 항공차오 공항간 셔틀 개설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홍차오 공

항의 수용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개설이 지연되어 왔다. 양국은 또 한중간 고대역사 문제 등 제반 현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자는 한편, 해·공군간 직통 통신망 구축 협의를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중국 3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원 총리는 한국의 IT(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확대를 희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행자부도 '무능 공무원' 퇴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업무 부적격'(무능) 공무원에 대한 인사쇄신(퇴출) 제도가 시행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적격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한 뒤 평가를 거쳐 '재배치'하고, 이후 다시 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

단되면 법에 따라 직권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업무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3진아웃 퇴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52회 호남예술제
 ▶ 4월 3일-12일 접수 ▶
 국회의장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시상
 미술·작문부문 입선제 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0-0541·222-8111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 유일의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6051 ▶ T.(061)360-5000

보건복지부 시험관아기 시술 지정기관
 불임증·습관성 유산·복강경 수술

산부인과·내과·종합검진 전문병원

시엘병원은 여성에 관련된 모든 질병을 연구하며 불임/습관성 유산·시험관아기 시술 전문병원입니다.

산부인과	내과	종합검진센터	영상의학과
산모교실 운영 가족분만	간염 클리닉 갑상선 질환센터	무통 위·대장 내시경 CT(컴퓨터 단층 촬영)	마취과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내 가족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곳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13-21(신세계백화점 앞) Tel. 062)368-1700~2 www.clhospital.com